

튜비콘, 의료기기 ‘일체형 소변컵’ 굿디자인 마크 달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사업 참여 의료기기 제조업체 컵과 샘플튜브 통합 호평...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광주지역 의료기기 제조업체 튜비콘이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굿디자인(Good Design) 마크’를 받았다.

튜비콘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코리아’에서 컵과 샘플튜브가 하나로 통합된 ‘일체형 소변컵’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상)을 받았다.

올해로 40회인 ‘굿디자인 어워드 코리아’는 심미성과 독창성, 사용성 등을 평가해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 정부 인증 마크(GD)를 부여한다.

‘일체형 소변컵’은 미국임상병리사이



자 대학병원 검사실 15년 경력의 박제현 튜비콘 대표가 환자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감염을 예방하고 검체가 바뀌는 의료사고를 방지한다. 높은 업무효율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제현(사진) 대표는 “일체형 소변컵은 컵과 샘플튜브가 하나로 연결된 형상으로, 막대기 형태의 시험관인 샘플튜브를 돌려 간단히 컵에서 분리 가능하다”며 “길보기에는 단순해보이지만 사용자의 편의성, 대량생산, 그리고 의



지난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굿디자인 어워드 코리아’에서 튜비콘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 굿디자인 마크를 받았다. <동강대학교 제공>

료사고 방지를 위한 ‘디자인 형상, 결합 방법, 작동원리’ 등의 혁신적 핵심기술 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창업한 튜비콘은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가 ‘스타트업’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생활혁신 ENJOY Program in 광주)’에 참여하며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 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을 쌓고 있다. 이에 올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수연구추진 사업에도 선정됐다.

튜비콘은 56개국 89건의 특허, 디자인 특허, 상표를 확보했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록 완료했다. 또 유럽의료기기 인증(CE IVDR Class A-s) 절차를 준비 중이다.

튜비콘은 지난 11월11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에 참가해 세계 150개국 바이어들을 만났다. 사전 미팅 예약을 통해 기업 5곳과 회의를 진행했고 10곳의 해외 바이어들과 가격 협상을 벌였다.

박 대표는 “체외진단 기기분야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미팅을 요청했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또 미국의 대형 기업 3곳과 협상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외국계 고급호텔 광주 몰려오나...실현 여부 주목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광주’ 2030년 개관 하얏트호텔도 농성동 웨딩홀 부지 입점 관심

메리어트·하얏트 등 외국계 고급호텔들이 광주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에 대규모 숙박 인프라가 부족 한 가운데 외국계 호텔들이 입점한다면 광주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지역 호텔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인터내셔널은 ‘세라톤서울’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광주’ 오픈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메리어트인터내셔널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100번째 계약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광주는 JS글로벌과 협력해 300실 규모로 2030년 개관할 계획 이다.

이로써 광주지역에서는 첫번째 코트야드 브랜드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Courtyard by Marriott)는 1983년 론칭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다.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인 이 브랜드는 아태 지역에서 가성비 좋은 호강스 장소로 유명하다.

현재 메리어트는 한국 10개 도시에 38개 호텔을 운영 중이며, 12개 호텔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자세한 호텔 부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5성급 하얏트호텔도 광주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에 진출한 한국 하얏트 호텔(Hyatt Hotels)은 글로벌 호텔 체인인 하얏트 호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급 호텔이다.

앞서 지난 4월 광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웨딩홀 일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단지에서 하얏트 호텔 인터내셔널 홀딩스와 시행사 SJG가 호텔 입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하얏트 호텔은 오는 2027년부터 20여

객실 규모로 호텔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 7월 주상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심의를 통과, 최종 승인되면서 광주에 첫 5성급 호텔이 들어설지 기대가 모아졌지만 현재까지 착공 등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 호텔업계 관계자는 “복합 소품 물과 연계한 특급 호텔 입점을 비롯해 글로벌 호텔 체인이 다양하게 들어오면 지역 내 수요 충족과 더불어 외부 관광객과 MICE 유치 등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오픈 계약이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호텔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 확정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솔기자

광주신세계-기아, 지역 온정 나눔 ‘훈훈’

1천만원 쌀기부...김장 봉사 등 꾸준 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아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지역상생활동을 펼치기 위해 차광전시 이벤트를 기획했다.

광주 현지법인으로 지역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100광주신세계가 연말을 맞아 다채로운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지역 상생을 위한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와의 협력도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10일 “이날 오후 광주 서구청에서 ‘서구 장애인 보호시설 물품(쌀) 후원 전달식’을 열고 1천만원 상당의 10kg 백미 434포를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장기보호시설 등 총 34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광주신세계가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임대 비용을 받는 대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강 서구청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정길수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일자리 창출 등 지

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아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지역상생활동을 펼치기 위해 차광전시 이벤트를 기획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신세계 본관 1층에 11월11일부터 12월8일까지 인기 차종인 ‘더 뉴 스포티지’와 ‘K8’, ‘EV3’를 선보였다.

특히 ‘더 뉴 스포티지’는 기아 AutoL and 광주에서 생산되는 광주 대표 차종으로 11월5일 출시된 이후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전시됐다.

광주신세계는 개점 20주년 기념 김장 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11월20일 광주김치터운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눔봉사활동을 개최하고 5kg 김장김치 총 200박스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1857구에 전달했다.

오는 12월24일에는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난방유와 선물을 전달하는 ‘희망스타 원정대’ 사회공헌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정은솔기자

주택건설 광주·전남도회, 희망2025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0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천만원씩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연말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과 더불어 매년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랑의 연탄 후원,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전달,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

남도회장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협회는 변함없이 소외계층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다양한 후원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채만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대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C 유지하기
- 동풍 뚫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센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호젓해서 좋은 신안지도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3, 8, 13, 18, 23, 28일

※ 신안군내시장 : 송도수산물시장, 신안젓갈타운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1004 신안군** 문의 : 062)650-2099